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trading@hanafos.com

“재미없다.” “이제 뭐 해 먹고 사나?”라는 말이 수입 계육시장의 키워드 같다. 연초부터 상승했던 수입육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3/4분기에도 큰 변화가 없어서 물량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판매시세가 맞지 않아 단지 공장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유통시장의 주체들은 ‘개점휴업’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의 경우 대다수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수입육 포장지에다 국내산 계육을 포장하고 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으나, 업계 종사자라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수입육 보다 저렴한 국내산 계육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도리용 사각(Leg Quarters)이 그것이었으나, 지금은 장각(Whole Legs), 가슴살(Brest Meat) 등 익숙하게 덤핑가격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대다수의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세전망이 밝지 않아 계육업계에 투자되어야 할 역량들이 타업종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D업체는 IT관련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M업체는 돈육시장에 역량을 쏟고 있으며, S업체는 오래 전부터 해산물(Sea Food)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기존의 시장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은 소수의 무역업체 - 적정수의 유통업체 - 다수의 소매업체를 통해 피라미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향후 수년간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식자재 유통회사인 O사와 H사는 직접수입을 통해 수입업체가 된 지 오래고, 또다른 H사는 국내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별도법인을 만들어 수입육을 학습하고 있으며, 기존 수입육 제조공장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계

속해서 신용장을 오픈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이미 사라졌고, 무역업체가 가득하다. 국내 계육 시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원인으로 전 세계 계육시장이 초 호황일 때 한국만이 초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환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나, 대다수 오퍼가 한국의 유통가격보다 높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은 1,500~1,600불, 사각(Leg Quarters)은 1,200~1,300불, 사이즈장각은 1,700~1,800불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8월과 9월에 수입되는 물량은 현재와 같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 가격이 한층 더 올라 역시 한국의 유통가격 보다 낮지 않고, 국내 재고 물량도 많지 않다. 3/4분기 오퍼가격은 2,200불 정도이다. 국제가격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가격에 한국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재미있는 것은 유통시장의 붕괴와 대다수의 업체가 브라질 정육재고를 갖고 있어 큰 가격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8월과 9월 수입량이 적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돼지 살처분으로 계육소비량이 급속히 늘

어났고, 일본 업체에서 3/4분기 물량을 대량 구매했기 때문에 대 한국 물량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와 비교해서 20%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덴마크

꾸준히 이슬람 관련(Halal) 제품들이 한국에 소개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국 장각(Whole Legs)의 경우 kg당 100원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우나, ROSE의 할랄마크가 부착된(Halal Whole Legs) 장각의 경우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제품의 한계성 때문에 수익력이 몇 배 높다고 한다.

결론

계육시장의 경우 매순간 시장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감이 필수이고, 이를 즐기면서 계육업에 종사해 왔으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업체는 왜 이렇게 부가가치가 낮을까?’ ‘어떻게 하면 시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업체 종사자들의 연봉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또다시 2004년과 같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미국과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야만 하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가 발생해 내심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저병원성이었다. 올해 들어 몇 번 발생했었는데, 언제나 ‘저병원성’ 이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장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